통도사, 세계 최대 한지불화 불사 추진

9월 19일 불사 계획 및 사전제작 대형한지 공개

가로12m · 세로24m 규모
한지 불화로는 세계 최대
옻칠로 장기 보존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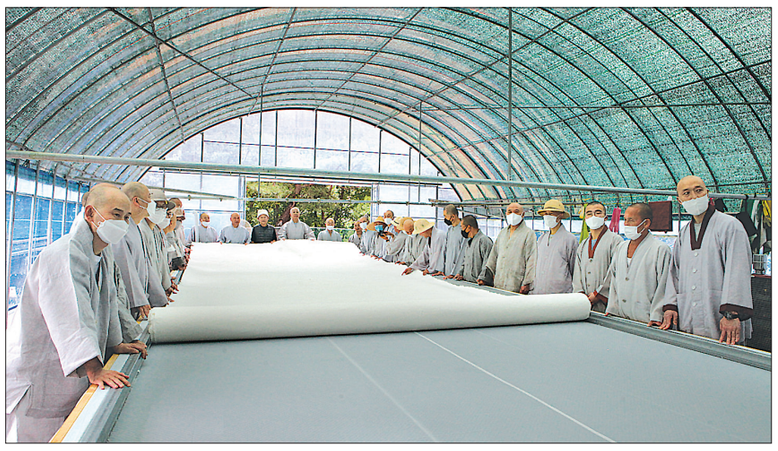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통도사가 한국불교 불화의 가치를 높이는 한지불화 불사에 돌입했다. 통도사(주지 현문)는 9월 18일 서운암에서 방장 성파 스님의 세계 최대 한지불화 추진 계획 및 사전제작한 대형 한지를 공개했다.

성파 스님은 1983년부터 한지에 관심을 갖게 됐다. 당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첫 개인전을 열 때 금니 사경을 감지(紺紙, 푸른 쪽빛을 여러 번 물들여 남색에 가깝게 제작한 종이)가 아닌 흑지(黑紙)에 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감지 제작에 나선 성파 스님은 한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전국을 수소문해 한지장인을 초빙했고 3년 간 서운암에서 한지 제작 기술을 습득했다.

성파 스님은 "한국불화의 소중함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스님은 "불교 미술이 한국 미술계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며 "한국 미술의 가치는 원시 시대부터 불교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서양미술사와 비교를 해보면 한국불교 탱화는 8세기부터 그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우리나라 불화는 세계 속 최고 작품이자 가장 오래된 예술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성파 스님은 통도사에서 특별히 제작한 대형 한지에 옻 물감으로 불화를 그릴 예정이다.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을 비롯한 통도사 대중들이 9월 18일 서운암에서 직접 제작한 대형 한지를 공개하고 있다.

불화불사를 위해 통도사는 불화불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불화 완성 후에는 별도의 상설 전시실을 마련해 대중에게 발표한다.

이날 한지불화 추진계획 공개에서는 사전 제작된 대형 한지도 함께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한지는 가로 3m, 세로 24m의 대형 크기다. 한지불화는 대형한지 총 4장이 사용돼 가로 12m, 세로 24m가 된다. 대형 한지는 비단으로 배접한다.

한지제작에는 성파 스님의 모든 노하우가 발휘됐다. 이번 한지는 성파 스님이 창의적인 기술로 만든 걸작으로 한지 제작 기술인 외발뜨기와 쌍발뜨기 방식을 응용해 대형 한지 제작 틀을 만들었다. 과거 한지는 물이 빠지는 널빤지를 위로 들어 올려 닥나무와 천연 닥풀을 얇은 두께로 남기는 방식이었다. 성파 스님은 물이 아래로 빠지는 대형틀을 제작했고 그 위에 물을 먼저 받은 후 한지 원료가 되는 닥풀과 닥섬유 등을 부었다. 성파 스님이 오랜 경험으로 적절한 원료 배합을 찾을 수 있었고 한지 제작의 전반적인 과정을 알았기에 가능한 작업이었다.

통도사의 불사로 인해 한지불화가 한국불교문화를 세계 속에서 다시 꽃피울 것으로 기대된다.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임명

원행 스님, 25일 임명장 수여



조계종 제16교구본사 주지에 등운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9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신임 주지 등운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사진〉 등운 스님은 같은 날 고운사에서 열린 산중총회에서 주지 후보로 선출됐다.

임명장 전달 직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본사 소임을 수락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잘 화합하여 고운사가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등운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의 당부처럼 교구의 모든 구성원들과 잘 화합하여 고운사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앞서 고운사 주지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등운 스님은 9월 22일 조계종 중앙선관위원회 회의에서 진행한 자격심사에서 '이상 없음'이 결정됨에 따라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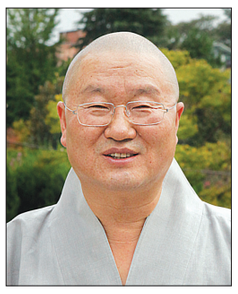
스님은 주지 후보로 당선 직후 "수행자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정견이 생기고 모든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된다"며 "최선을 다해서 교구에 수행가풍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등운 스님은 근일 스님을 은사로 1985년 사미계를, 1988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칠불사 운상선원, 고불총림 선원, 부석사 봉황선원, 조계총림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다. 삼보사, 서악사, 연미사 주지 및 제15~17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생명 위한 대사회 역할이 본분"

[인터뷰] 심산 스님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신임 본부장)



"생명나눔실천 활동은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생명을 위한 대사회적 사업'입니다. 생명을 위한 실천과 활동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신임본부장에 흥법사 주지 심산 스님〈사진〉이 추대됐다. 심산 스님은 생명나눔실천에 대한 가치를 생명보호와 존중에 두고 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14년 동안 전 본부장이신 원범 스님이 모범이 되어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누가 되지 않도록 충실하게 역할을 이어 갈 것입니다. 아울러 흥법사에서 운영하는 템플스테이, 영유아 행복드림센터, 평생교육원 등과 연계해 협력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스님은 구체적인 지원활동을 위해 재능기부 후원단체를 설립한다. 재능기부자들은 한의사, 호텔 CEO 등 사회 지도자로 행사 및 환자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산 스님은 현재 (사)한나래문화재단 이사장, 국제불광회 한국부산협회 회장,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본부장, 금정구자원봉사센터 대표이사 등을 맡아 국내외 봉사 및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극락왕생을"

9월 25일, 부산 안국선원서 이막달 할머니 천도재 엄수



불자인 위안부 피해자 이막달 할머니 천도재가 9월 25일 부산 안국선원에서 엄수됐다.〈사진〉 이막달(97) 할머니는 지난 8월 29일 부산에서 영면에 들었다. 천도재에는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과 주지 석산 스님 및 영가 가족, 신도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막달 할머니는 1923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 17살이었던 1940년 일본인에게 속아 대만 위안소에서 일본군 위안부으로 피해를 당했다. 해방 후 부산으로 귀국한 할머니는 2005년 정식 피해자로 신고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 참가 등 피해증언 활동을 펼쳤다.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과 이막달 할머니와의 인연은 수불 스님이 직접 할머니 집을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수불 스님은 2015년 대원상 포교대상을 수상하며 상금을 나눔의집에 기부했다. 기부를 위해 나눔의집을 방문한 스님은 부산에도 피해자 할머니가 있음을 알고 그 해 12월 이막달 할머니를 찾아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때 스님은 불자인 할머니를 위해 사후 천도재를 약속했다.

수불 스님은 "할머니가 불자셨다. 자손들도 효자였고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 기억에 남았다. 별세 하신 후 가족들이 연락을 줘 이렇게 천도재를 봉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할머니가 용기를 내 일본의 만행을 알린 것은 다시는 위안부와 같은 일이 반복 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화개산 반야사, 사랑의 백미 나눔 눈길

창원 화개산 반야사가 풍성한 한가위를 기원하며 백미를 소외이웃에게 전달했다. 조계종 화개산 반야사(주지 혜명)는 9월 24일 경내 법당에서 '사랑의 백미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전달식에는 주지 혜명 스님을 비롯해 경문 스님, 장동성 내서읍 읍장 외 신도회 임원 10여명이 동참했다. 쌀은 봉화군에서 재배 된 햇쌀 10kg 100포(300만원 상당)이며 내서읍 행정복지센터에 전달 후, 어려운 이웃에게 회향 될 예정이다.

반야사 주지 혜명 스님은 "모두 함께 마음을 내고 정성을 모았다"며 "독거 어르신들을 비롯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 기쁘고 풍성한 한가위로 행복한 시간 되 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사찰의 맛, 공양주가 전해요

화엄사 산사의 밥상 개강식



전국적으로 가장 인기있는 사찰에서 직접 음식을 배우는 '산사의 밥상'이 열렸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9월 21일 기존 공양소 옆에 사찰음식체험관을 새로 개관하고, 산사의 밥상 11기 강좌 개강식을 개최했다.〈사진〉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열리는 화엄사 사찰음식 강좌인 '산사의 밥상'은 전국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도 높다. 올해는 코로나19의 감염확산에도 40여 명의 참가자가 몰려 그 인기를 실감했다.

자연 먹거리가 중요시 되는 시대를 반영해 30년간 공양주 소임을 맡아온 마하연 교수의 '산사의 밥상'은 특별한 이력을 지닌 것만은 확실하다.

강사로 나선 화엄사 공양주 마하연 교수는 "공양주 30년 세월의 역사가 담겨있는 시간이다. 이 장소를 만들어 주신 화엄사에 감사드린다"고 전통사찰음식체험관 개관에 대한 말을 연 뒤 "산사의 음식은 별도의 재료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제철음식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강좌는 이날 첫 강의를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총 10회의 강의와 실습을 진행한다. 내용 또한 사찰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을 사찰문화에 맞게 조리하고 의미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한편 행사에 앞서 개관한 화엄사 사찰음식체험관은 전체 203.13㎡(61.45평)으로 작년 9월 착공해서 올해 8월 준공됐다. 내부에는 10개의 조리시설과 영상장비 등이 완비되어 있다.

양형선 광주전남지사장

교구 대종사 재곤스님 등 추천결의

고창 선운사 교구종회 9월 23일 개최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2차 교구종회를 개최했다. 9월 23일 선운사 템플스테이 심우당에서 열린 이번 교구종회는 개암사 주지 대원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내장사 주지 지태 스님,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 등 교구종회의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구종회는 교구 대종사 추천의 건, 고창불교회관 현황 및 운영방안의 건, 선운사 불사진행 현황보고, 전북 남부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설립 추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했다.

주요안건인 교구 대종사 추천의 건은 앞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재곤 스님, 혜산 스님, 대우 스님, 범여 스님, 법현 스님을 추천하기로 추인했다,

고창불교회관 운영방안은 불교회관 건물 준공 후 운영 중인 갤러리, 북카페, 명상실, 스터디 카페, 고창 시니어 클럽 등의 운영현황 보고와 향후 사업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한 토의로 이어졌다. 이어 고창불교회관의 원할한 청소년 포교사업추진을 위해 전북 남부파라미터 청소년협회를 설립하기로 결의했다.

경우 스님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교구본사는 물론 말사 주지스님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등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구 대중스님들의 협조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교구의 사업계획과 운영방안을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교구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월산 대종사 23주기 추모 다례재

경주 불국사(주지 종우)는 성림당 월산 대종사 23주기 추모 다례재을 9월 21일 경내 무설전에서 봉행했다.〈사진〉

이날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과 관장 종상 스님, 문도, 말사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월산 대종사의 유훈을 기렸다. 월산 대종사의 육성 법문에서 "체(體)와 용(用)은 허공과 같아 둘다 여의지 않고는 중생의 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가르침을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한국불교승가회, 심장병 환아 돕기 나서



대한국불교승가회가 심장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을 후원해 훈훈함을 전한다. 대한국불교승가회(회장 성보)는 9월 23일 경남 창원 불광사에서 사랑실은교통봉사대에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돕기 및 무연고자 장례 의식 후원금을 전달했다.〈사진〉

전달식에는 보경사 석산 스님, 수선암 성산 스님 외 종단스님들과 교통봉사대 신도회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장 성보 스님은 "함께 뜻을 같이 모아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착한 일을 행해야 한다"며 "자비심 가득한 마음으로 불국정토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김인효 사랑실은교통봉사대 지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과 모든 단체가 힘든 시기에 승가회 스님들께서 뜻을 모아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